

“성균관대, 대학원생 연구주관 불허는 연구자간 차별”

대학원생노조 성균관대학교분회
“학문후속세대에 명백한 차별”
한국연구재단 원칙에도 어긋나

성대측, 오늘 신청학생 간담회
“입장 설명하고, 의견 들을 것”

성균관대학교가 박사학위 이상의 연구 사업은 주관기관을 승인했지만, 대학원생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의 주관기관은 불허하면서 연구자간 차별이 지적됐다. 학계에서 대학원생들의 연구 지원이 반복적으로 도외시되는 만큼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촘촘한 학술 정책이 요구된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균관대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 사업의 주관기관 승인을 거부하면서 성균관대 대학원생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B유형 사업은 인문사회 대학원 재학생·수료생의 신분으로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재단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늘고 있는



등교하는 대학생들

/뉴시스

대학 밖 비전임 연구자들이 연구와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시간강사 연구 지원 사업’을 개편했으며, 석사학위 단위의 미취업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 연구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성균관대가 B유형을 주관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오히려 연구자간 차별이 주목됐다. 17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성균관대학교분회는 ‘학문 후속세대를 외면하는 성균관대’라는 성명서를 내고 “대학원생들이 유일하게 지원 가능한 B유형만 주관하지 않겠다는 것은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인문사회 학술사업의 주관을 굳이 거부하는 것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공자들에 대한 학교본부의 홀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균관대가 B유형 외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A유형 사업과 조교수 이상이 지원 가능한 타 사업들에 대한 주관기관 승인은 유지하면서 B유형만 거부하는 것은 연구자간 차별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대학 측은 연구재단을 주관기관으로 설정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소속이 없는 독립 연구자를 위한 제도를 악용한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결정 과정에서 학교

홈페이지나 메일 등을 통해 공지하지 않았고, 지원 마감일까지 한 달 내내 공식적인 안내를 하지 않아 혼선이 생겼다. 지원자들은 지원 후에 신청을 반려했으니 주관 기관을 바꾸라는 통보를 받게 돼 어리둥절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산학협력단의 사업수행 거부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에 속한다. 대학원생 노조가 이 건에 대해 연구재단에 문의한 결과,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당황과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성균관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B유형을 신청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학교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당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학계에서 연구자간 차별이 빈번하게 벌어지자 2021년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연구자 권리선언문’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공대위는 “학술 연구의 정당한 가치와 연구자의 권리를 천명하고 대학과 학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구자간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도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학술 관련 정책 수립 시 젊은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 요구됐다.

열린교육연구의 ‘대학원생 연구효능감의 영향요인 탐색(2021)’ 논문에서도 대학원생 대상의 정부 차원의 지원문제가 제기됐다. 논문에서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성장중심 멘토링을 독려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지도교수가 실제로 대학원생의 연구주제 발굴이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방법 학습을 지원하는 등의 방향으로 대학원생 대상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 교통수요 최다 ‘강북강변선’ 추진을”

시정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서
303명 지지 ‘최대공감 제안’ 뽑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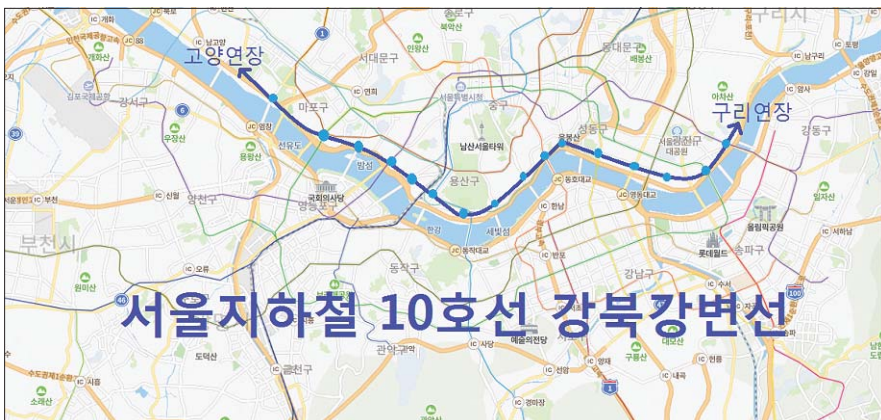
서울시민들이 도시철도 강북강변선 추진, 강변북로 진출입로 신설, 강서구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19일 서울시의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따르면, ‘강북강변선(가칭 10호선)’을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최모 씨 청원이 이달 3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시민 303명의 지지를 얻어 ‘이달의 최대공감 제안’으로 뽑혔다.

최모 씨는 “서울에서 교통수요와 이동량이 가장 많은 곳은 한강을 기준으로 한 동서축”이라며 “동서축 남쪽에는 9호선과 올림픽대교가 있으나 동서축 북쪽에는 강변북로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 일부 구간에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으나 지상 전철이고 운행횟수도 제한적이며 한강 전체와 나란히 하는 9호선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동서축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북강변선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안에 시민들은 “지하철이 강남권에 많은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다”, “강변을 따라 이 노선이 생기면 환승역이 8개 이상으로 많아져 아주 편리해질 것이다” 등의 의견을 덧붙이며 호응했다.



최모 씨가 제안한 강북강변선(가칭 10호선) 노선.

/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시는 신규 도시철도를 건설하기에 앞서 10년마다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노선 타당성을 검토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운다”면서 “강북강변선 추진 사항은 향후 5년마다 도래하는 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재검토 시기에 사업 타당성 여부를 분석해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광진구 자양2동과 3동의 경계에 강변북로 진출입로를 개설해달라는 김모 씨의 제안에는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229명이 공감했다.

김씨는 “현재 영동대교와 잠실대교 사이 거리는 3km인데 강변북로 어디에서도 이 정도로 긴 구간 사이에 별도의 진출입로가 없는 곳이 없다”면서 “영동대교와 잠실대교 중간인 자양변영로 일대에 강변북로 진출입로를 개설한다면 교통량이 분산돼 출퇴근길 및 뚝섬 한강공원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는 청원자가 제안한 강변북로~자양변영로~자양강변로 일대는 ▲산자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문제 ▲주변 아파트 등 거주지역 환경문제(소음·분진·미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설치에 따른 자양강변로 주변 녹지(수목) 제거 ▲강변북로 정체에 따른 자양변영로 교통 혼잡 등의 사유로 진출입 램프 설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강서구에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해달라는 목소리를 내 지난 2월23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52명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반려동물이 있어 거의 매일 서울식물원에서 산책을 한다”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없어 공원을 걸으며 산책하거나 한쪽 잔디밭에 모여 노는데 갈 때마다 반려동물 관련 유의 플래카드가 추가되고 관리인들이 가운데서 지켜보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김현정 기자 hjk10

해외 관광객이 찾는 ‘골목길’ 만든다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서촌 등 5곳, 상권별 최대 15억 투입

서울시는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골목길을 해외관광객이 찾아오는 글로벌(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상권으로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촌 ▲이태원 ▲수유동 ▲신촌 ▲천호 자전거 거리 총 5곳이다.

앞으로 3년간 상권별로 최대 1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골목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외국인이 선호하는 글로벌 요소와 인프라를 추가해 국내외 방문객을 동시에 늘린다는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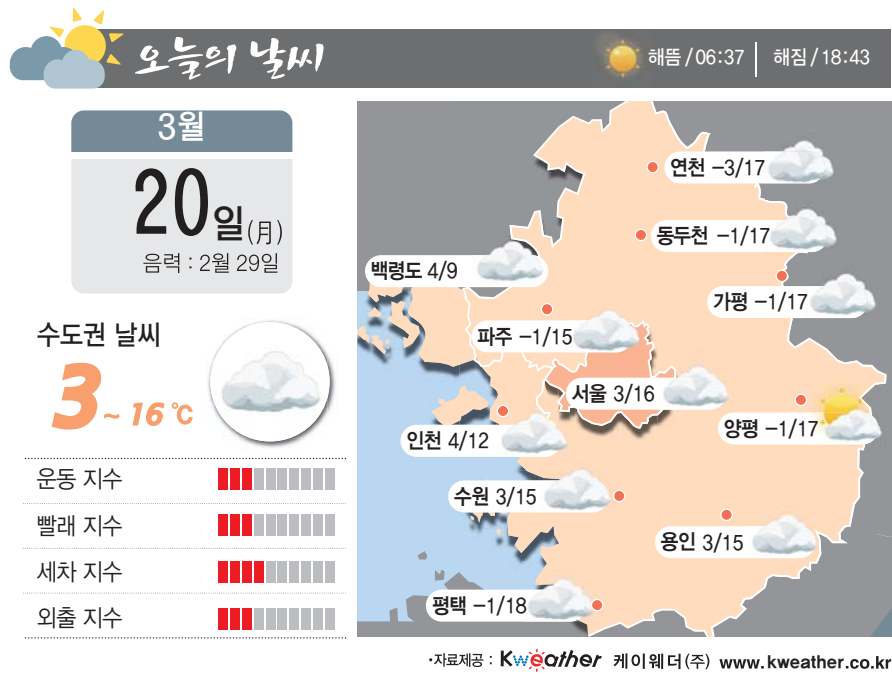
시는 서촌 상권은 상점들의 연대가

부족하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상인 간 협업을 통해 서촌에 새로운 콘텐츠와 인프라를 생성하고 임대인과 상인 간 상생을 유도,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태원 상권에는 3D 비디오 매핑 등을 활용해 지능형(스마트) 디지털 거리를 조성, 내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최근 건축가 기획 공간과 혁신적 개념의 시설이 생기면서 MZ세대의 방문이 늘고 있는 수유동에서는 상권 활력이 유지되도록 자생력과 경쟁력을 기르는 내용의 사업이 추진된다.

신촌에서는 음악, 공연 문화가 다시 싹틀 수 있도록 토양을 다지는 작업이 추진된다.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88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韓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온두라스·코스타리카에 파견
▲바이든, 성패트릭데이 파티서 아일랜드 총리와 단결 강조
/사진 뉴시스

▲“UBS, 크레디트스위스 인수 사전협의…정부에 인수비용 60억달러 요구”
▲중국, 무인 자율주행차량 허가, 3개월 도로 시운전



▲파키스탄 남서부서 정부군 소탕작전에 테러범 3명 피살
▲에콰도르 6.8 강진 사망자 13명 페루도 1명…매몰자 다수
/사진 뉴시스